



월간미술



2015 06

www.monthlyart.com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 잡지

예술이 일상의 진실을 말할 때

한국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면 역사는 살아 있는 자가 치열하게 삶을 이어가는 달리기였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속사정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가 삶의 진면목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 근현대사에서 미술이 삶의 리얼리티에 제대로 접근했다고 할 수 있는가? 필자는 일상적인 느낌과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예술은 일상의 삶에서 개별적 체험을 통해 인간이 보편적으로 마주하는 문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거창한 비전과 계획으로 이뤄진 삶이 아니다. 민족이나 국가, 사회의 특정 계층이나 구성원 일부가 대량살상으로 인해 혹여 절멸된다고 해도, 나머지 개인들이 비참한 생활로나마 생존할 수 있다면, 역사는 생존자들의 뾰족한 이해관계의 긴장으로 무장돼 미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 굶주림과 학대가, 살상과 모반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일상은 새벽 위로 떠올라 밤사이로 지나가기를 반복한다.

일상에서 몇몇 극소수 개인은 다른 공동체와의 전쟁도 기획하고 생의 미화도 만끽하면서 나머지 개인의 삶을 고갈시키며 한순간 죽음에 이르게도 하지만, 이들 극소수가 행하는 압제와 만행을 중지시키려면, 나머지 '전체'는 자신의 일상과 일생을, 생명을 바쳐야 한다. 이 싸움은 수십 년, 수백 년간 지속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오랜 인류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양한 인종들의 생존능력에도 불구하고 생활 가운데서 '사는 마음'이, 그 속사정과 속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슬프다든지 기쁘다든지 하는 반응 외에는 제대로 밝혀진 내용이 없다. 학문과 일부 문화예술 작품들에서 그 내용이 개별적으로 확인되지만, 학문과 문화생산물도 부와 명예의 적극적 수단이 되고 산업화 추세도 반영되면서 마음이 감춘 생활론, 마음이 행하는 대사회적 전략전술에서의 진지전 양상과 양태는 세간의 눈에 잡히지 않는다. 그 양상과 양태가 표현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추상화로 표현돼 구체적이지 않거나 외재적 시각으로만 보이는 이론적 설명으로 비슷하게 더듬어질 뿐이다.

실제 생활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논픽션 도큐먼트 형식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도 사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에 관한 기록이거나 개인의 일생을 구성해 보여주거나 개인의 마음의 주장을 담으면서 마음속 진실의 진면목, 한 인간으로서

인간 전체로서 느끼는 생각들이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일부 진실일 수도 있는 문제일 뿐이다.

학문과 예술은 개인의 범속한 속사정을 그가 살고 있는 일상체계와 연관해 낱낱이 헤쳐내는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이다. 사실주의적이든 자연주의적이든 개인을 계급전형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의 뱃속 모나드 같은 밀실 창을 통해 시커먼 혹은 가여운 '시민'으로 외부정세를 파악한 결과로써, 겉으로 드러난 그의 말과 행동과는 다른, 달리 어떻게 결정했는지 본인조차도 해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의 속사정은 시각적 재현상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우리 근현대사에서 미술이 이러한 바의 리얼리티에 접근하지 못했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는 가짜라는 의미가 된다. 진실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뜻이다.

마음의 궁리나 심사니 하면서 거론하는 '마음'이란 일반인 혹은 대중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저 일개인의 마음이 생각하는(心思) 것이거나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일(心事), 그래서 마음의 역사(心史)라고 할 만한, 개인마다의 마음속 작동 내용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오형근의 사진 <아줌마> 시리즈에서 언뜻 드러나는 '아줌마' 마음의 작동 소리요, <중간인> 시리즈에서의 '중간인'의 심사(心思)인데, 문제는 마음이 복잡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미지는 마음에서 어떤 착잡한 소리들이 나고 있음은 보여주지만, 그 마음의 소리의 실타래처럼 영킨 갈래들이 어떤 숨긴 마음을 반영하는지, 얼굴 뒤로 가려진 숨긴 마음의 구체적 내용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재현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마음'은 논리로 인식되고 배운 사물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과는



오형근 <벚꽃 나무와 군인, 그리고 군견 '복두'> 2010

달리 일상생활에서 취하게 된 마음의 생각이고, 이 생각들이 생성, 소멸되고 마음에 쌓이면서 나는 '마음의 착종 소리'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간지(奸智)라고도 할 수 있는데, 프로이트나 라캉 등이 이를 상징계나 실재계 등의 개념과 구조로 밝혀보려고 하지만 마음속 깊숙이 안착돼있는 더럽게 리얼한, 마음에 간직된 삶의 개인적 체험내용들은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남아있다.●